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명수 '수액'. 우리 그룹이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뒤 생산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는 수액은 '생명존중'이라는 기업 정신을 실천한 우리의 정체성(Identity)이다. 하지만 수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임직원은 많지 않다. 2015년 창립 70주년을 앞두고 사보를 통해 우리 그룹의 역사와 함께 해온 수액에 대해 조명한다.



도전과 창의를 정신으로 태어난 수액(輸液), “너는 내 운명”

이한표 전 부회장은 -

1957년 성균관대 약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1961년 약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0년 대한중외제약에 입사해 학술부장, 생산과 연구개발 부문 상무를 역임하면서 수액 생산의 기틀을 다졌다. 1975년 약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생산본부장, 영업본부장 등 경영 전반까지 역할을 확대했다. 1983년 부사장에 승진하면서 초대 종합연구소장이 됐다. 1989년 중외산업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했고 1992년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반도체 사업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삼성이 있었을까? 세계 최강 IT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전자의 초고속 성장 시에 '반도체 신화'를 빼놓을 수 없는 까닭이다. 실패를 두려워 않는 형식 타파의 도전과 창의를 정신으로 이뤄낸 산물이다. 이 같은 정신을 실천한 우리 그룹의 정체성(Identity)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한 뒤 혁신의 길을 이어가고 있는 '수액'이다. 최근 70+ 기념 책자인 '수액이야기' 인터뷰를 위해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JW 수액의 70년 발자취에 대한 신증인인 이한표 전 부회장을 만났다. 환철한 키와 남다른 카리스마를 뽐내는 모습과 함께 팔순을 훌쩍 넘긴 그의 음성에 힘찬 에너지가 느껴진다. <편집자주>

폐병, 주방기구 모아 만들었던 수액

“정말 열악했지. 청계천 4가 대로변에 길게 자리 잡은 노점상을 돌아다니면서 수액 생산에 필요한 스테인리스 기구들을 죄다 구입했어. 미군들이 쓰다 버린 군수 물자였지.”

1960년, 혈장증량제인 비타푸라스마 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대한중외 제약 충무로 공장에 입사한 그는 당시의 취약했던 상황을 회고한다.

6·25 동란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파괴된 국내 산업 환경 속에서 불가능하게 여겼던 의약품 국산화라는 미션은 그에게 커다란 도전이었다.

“미군들이 가지고 들어온 유리병 형태의 수액이었는데, 미군들이 쓰고 버린 병을 주워서 세척하고 약을 집어넣었어. 그 때는 기초수액을 많은 회사에서 만들었지. 근데, 근화약품이 앰플 부작용 문제로 부도가 난 거야. 그렇게 수액이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깐 다들 포기했어. 하지만, 우리에게만 수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어



1960년대 생산본부 직원이 수액제 이물을 검사하고 있다.



리지노마이신을 개발한 이한표 전 부회장과 회사를 방문한 광고 모델 홍세미 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종호 회장과 이한표 전 부회장이 종합연구소 현판식을 달고 축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정신이 있었어.” 이러한 수액에 대한 이 전 부회장의 애착은 국내에 수액요법을 알리는 데에도 크게 일조했다. 그는 “당시 약사회보에 ‘수액이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수액이라는 말을 처음 도입했다”며 “지금도 모든 종류의 수액을 링겔, 링게루 등으로 부르지만 그건 잘못된 표현이다”고 힘주어 말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수액시장 개척해

1964년 6월 회사가 하월공동으로 이전한 뒤 그는 실험실부터 꾸렸다. “사무실 가운데를 딱 잘라 실험실로 만들었어. 직접 나무를 사서 실험대를 설치하고 중구 주방 용구를 세척기로 썼지. 모든 것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거야.”

수액 생산 초기만 해도 하루 생산량이 400병 수준. 물의 수급부터 제조, 여과, 충전, 멸균 등 현재의 수액 생산 과정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 모든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액 전문 메이커가 되기까지의 가장 획기적이었던 변화는 무엇인지 물었다.

“수익은 별로 남지 않지만 이왕 만들 거라면 전문화 시키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품목을 개발했어. 하트만, 다로우주, 전해질 시리즈 ABCD 등을 만든 거야. 당시 일본과 수준을 맞춘 대단한 성과였지.”

수액 대량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 도입의 혁신도 빼놓지 않았다.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 최초로 이온교환수지를 이용한 정수시설을 구축하고 자동 증류수 제조기를 도입하면서 하루 4,000병 수준의 수액을 생산하게 됐어. 화성 공장 시대에는 수액자동충전기, 자동연속멸균기 등을 구축하면서 하루 10만개까지 생산할 수 있게 됐지. 그 당시

독일,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우리 상황에 맞는 설비를 꼭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품을 팔았어.”

1983년 설립된 종합연구소의 초대 연구소장을 역임한 그는 신제품 개발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 맥고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후리아민, 네프라민, 헤파타민 등 아미노산 수액을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심장수술에 필요한 심정지액도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어.”

미래는 과거로부터 출발하는 것, 70+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

창립 70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JW에 대해 그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는 ‘수학의 통계’에 있는 ‘시계열 분석’이라는 전문 용어를 인용하면서 말을 이어 나간다.

“흔히 증권이라고 하는 게 시계열 분석인데 간단해. ‘과거는 이랬으니깐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즉, 과거가 있으니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야 해. 60년대부터 JW 역사의 큰 물줄기 한 곳에 이한표가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내 실력을 발휘해서 기꺼이 거름이 된 거야. 앞으로의 10년, 30년 후에 그대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업무에 임해야 해.”

인터뷰를 마치면서 그에게 후배들에게 보석이 될 가르침은 무엇인지 물었다. 이한표 전 부회장은 “재직 당시 지질수액, 경구수액을 개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 박스터와의 계약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이처럼 수액은 나의 운명이었지만, 이제 JW에게는 이제 숙명이 됐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선배들이 보여준 수액에 대한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잘 이어가라”고 덧붙였다. JW